

‘말씀으로 하나되는 교회’

- 아우구스티누스, 칼빈,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교회론 소고 -

‘The Unity of Church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 A Short Article on the View of the Church in terms of Augustine,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

김진홍
(역사신학)

초록(Abstract)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고백한 교회의 4대 본성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가운데 ‘하나됨’과 ‘거룩성’은 교회의 역사에서 종종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본고에서는 고대교회의 도나투스파 논쟁에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과 종교개혁 시절 칼빈 및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론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속성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고찰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 두 사람은 모두 ‘사도성’에서 그 조화의 열쇠를 찾는데, 그것은 말씀 중심성이라는 기독교회의 근본적인 토대와 직결되어 있다. 개혁주의 전통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와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의 이런 공통된 입장에 서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성을 함께 지키려고 노력한다. 개신교회들의 심각한 분열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는 관용과 인내를 통하여 교회의 일치와 거룩을 함께 회복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의 ‘아디아포라’ 개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e Council of Constantinople in 381, confessed the four nature of the Church, that is, *unum sanctum Catholicam apostolicam*, of which ‘one’ and ‘holy’ are often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In this article I try to find the compatibility of the two fundamental natures of the Church, by considering a few significant church historical examples of this theme: Augustine’s doctrine of Church in his connection with the Donatist controversy,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and the Reformed confessions on the doctrine of the Church. Both Augustine and Calvin (and Calvinists) find the key to the harmony between unity and holiness of the Church in ‘apolicity’ of the Church, the central significance of the Word of God as the fundamental basis of the Christian church. Reformed tradition endeavours to keep the holiness as well as the unity of the Church on the common ground of the Church Father Augustine and the Reformed theologian Calvin. Today, in face of serious divisions of contemporary Protestant churches, we had better make good use of the Reformational wisdom ‘adiaphora’ in order to regain the unity and the holiness of the Church.

주제어: 아우구스티누스, 도나투스파 논쟁, 칼빈, 교회론, 개혁주의, 아디아포라

Key words: Augustine, Donatist Controversy, Calvin, doctrine of Church, Reformed Theology, Adiphora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한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신조는 기독교회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고백을 하였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인’(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교회를 믿는다.¹ 그 이래로 이 네 단어는 교회의 네가지 근본적인 속성을

묘사하는 용어로 널리 이해되었다. 여기서 교회의 ‘하나됨’(oneness)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Corpus Christi)으로 가르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교회는 그 한 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다. ‘거룩함’(holiness)의 속성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을 지적하며, 세상과는 다른 고유의 구조와 생활양식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보편성’(catholicity)이라는 속성은 교회가 모든 나라들에 퍼져 있으며 그 교회의 섬김과 복음 선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도달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사도성’(apostolicity)은 교회가 그 선포에 있어서 사도들의 증언을 전수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그 설교와 교리에서 교회는 사도적 신앙을 파수하는 원리를 나타낸다. 네덜란드의 교회사가 오토 드 용 박사는 교회의 속성들을 표시하는 이 네 단어들은 또한 교회사의 주요한 관심분야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지적한다.²

그런데, 교회의 이러한 근본적인 속성들 가운데 ‘하나됨’(oneness)과 ‘거룩성’(holiness)은 교회의 역사에서 종종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곧 교회의 일치와 분열을 초래하는 원심력(遠心力)과 구심력(求心力)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 교회의 거룩한 성격을 다른 속성들에 앞서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 교회는 흔히 그 하나되는 통일성을 잃고 분파로 갈라지거나 혹은 심할 경우 이단으로 전락하곤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다른 무엇보다도 강조할 경우, 교회는 종종 사도적 신앙에 따른 교리적 정통성과 순결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큰 구별이 없는 종교집단으로, 곧 거룩성을 상실한 타락한 교회가 되곤 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의 형편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천주교와 개신교, 재세례파 전통의 교회들과 같은 주요한 분열들뿐 아니라, 개신교 내부에서의 다양한 교회들(루터교회,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성공회, 감리교 등)의 분열,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가운데 하나인 장로교회 내부에서도 무수한 교단들(denominations) 간의 분열이 있다. 또한 활발한 선교 운동

¹ J.N.D. Kelly, *Early Christian Creeds* (New York: Longman, 1985), 297-298.

² Otto de Jong, *Geschiedenis der kerk* (Nijkerk: Callenbach, 1992), 9-10.

과 더불어 우후죽순으로 일어난 다양한 유사교회단체들(para-churches)까지 기존 교회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런 교회적 현실에서, 개혁주의 교회관을 ‘교회의 일치와 분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고백하는(*sola scriptura*) 개혁주의 교회는 교회의 이 네 가지 근본적인 속성들을 모두 중요하게 존중하면서 그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통적이고 보편적인 교회관’(orthodox and catholic view of the Church)을 파수하여 왔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2000년에 가까운 기독교회의 오랜 역사에서 일치와 분열과 관련된 몇몇 두드러진 사례들을 통하여 성경적 교회관의 핵심 개념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려 한다. 첫째, 도나투스파 분열과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공교회론을 살펴보고, 둘째, 로마교회로부터 분열주의라는 비판을 받은 개혁교회의 성경적 정통성을 칼빈이 어떻게 옹호하였는지, 또한 개혁주의 신조들은 어떻게 개혁교회의 교회관을 가르치는지 살펴보고, 셋째, 아디아포라(*adiaphora*)를 둘러싼 거듭된 논쟁들과 관련하여, 개혁주의의 성경적 교회관을 바탕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그런 다음 결론적으로 이런 교회사의 사례들에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성을 균형 있게 파수하기 위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1.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 도나투스파의 교회론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도나투스파(the Donatists)가 제기한 교회론의 문제

4세기와 5세기에 걸쳐 북아프리카의 교회에 일어났던 도나티스트 분열은 고대교회의 역사에서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됨’의 본질적 속성이 두드러지게 대립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³ 특히 로마 황제 호노리우

스의 명령에 따라 411년 카르타고에서 모든 가톨릭 주교들과 도나투스파 주교들이 함께 토론회를 열었을 때, 이런 대립적인 성격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도나투스파 주교들은 첫 날에 열린 11차례의 공의회 회기 중에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시편 1편의 교훈에 따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음으로써’ 그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 결과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도 자리에 앉지 않음으로써,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공의회 대표단들이 서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림으로써 각각 자신의 교회의 정통성을 표현하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⁴

311년과 312년에 카르타고의 새로운 주교 선출을 둘러싸고 일어난 가톨릭 교회와 도나투스파 교회의 분열은, 로마에 대한 카르타고인의 민족주의 감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갈등과 같은 비(非)신학적 요인들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쟁점이 된 것은 ‘거룩’의 개념을 둘러싼 이해의 차이였다. 문제의 발단은, 새롭게 주교로 임명된 카에킬리아누스(Caecilianus)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새 주교의 임직에 참여하여 그에게 안수를 하였던 다른 지역의 세 주교들, 곧 압통가의 펠릭스(Felix von Abthungni), 티치카의 노벨루스(Novellus von Tyzica) 그리고 투부르보 마이우스의 파우스티누스(Faustinus von Thuburbo Maius)가 모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가혹한 박해 기간에 성경책을 비롯한 교회의 ‘거룩한 문서들을 당국에 제출한 타락자’(traditores)라는 혐의를 받았다.⁵ 전통적으로 카르타고 주교의 선출에 큰 발언권을 행사하였던 누미디아 지방의 대주교 세쿤두스(Secundus)와 그를 따르는 70여명의 주교들은 박해 기간

³G.G. Willis, *Saint Augustine and the Donatist Controversy* (Eugene: Wipf & Stock, 1950). 117. “In the second note of the Church (i.e. ‘holy’) we touch the core of Donatist theology.” (괄호는 필자의 것).

⁴L. Praamsma, *De kerk van alle tijden* (Franeker: Wever, 1980), vol. I, 106.

⁵A. Schindler, “Der Donatismus” in *Thologische Realenzyklopädie* 1 (Berlin:Walter de Gruyter, 1977), 655. 여기서 서책을 제출한 자들(*traditores*)는 황제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배교한 자들(*lapsi*) 및 실제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으나 제사를 드린 증거를 구입한 자들(*libellatici*)과는 구별된다.

의 타락자들에 대한 엄격한 권징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카에킬리아누스의 주교 선출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의 안수자들의 자격을 문제 삼아 그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롭게 공의회를 개최하여 마요리누스(Majorinus)를 카르타고의 주교로 새롭게 선출하였다. 그 결과, 카르타고에는 가톨릭 주교들이 인정하는 카에킬리아누스와 누미디아 주교들이 인정하는 마요리누스, 두 사람의 주교가 공존하게 되었다. 2년 후 마요리누스가 죽은 후, 도나투스(Donatus)가 새로운 주교로 선출되었고, 그 추종자들로부터 대단히 존경을 받은 이 주교의 이름을 따서 '도나투스파'(pars Donati)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에게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를 원하였던 도나투스파는, 황제의 명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북아프리카의 두 교회 대표들을 심사한 로마 주교 밀티아데스(Miltiades)로부터 반대를 받았고(313년), 아를르 공의회(314년)와 황제의 직접 재판(316년)에서도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자, 당국에 대하여 반대하며 북아프리카의 반로마세력과 결탁하였다. '돌아다니며 약탈하는 강도떼들'(Circumcelliones)을 후원하며, 371년과 388년의 반란에 적극 가담한 도나투스파 교회는 그 모든 행위의 근저에 자신들의 정통성에 대한 변함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411년의 카르타고의 '서서 진행되는' 공의회에까지 이어졌던 것이다.⁶

분열된 북아프리카의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헌신한 가톨릭 교회의 중심인물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였다. 그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칼라마의 주교 포시디우스(Possidius)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기(Vita Augustini)에서, 이 교부의 성경적 변증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여 논쟁과 대화를 회피하는 도나투스파 지도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키르쿰켈리오네스의 여러 차례의 위협을 무릎 쓰고, 분열된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부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⁷

⁶ 도나투스파의 역사에 관해서는 Schindler의 글과 함께, V.L. Walter, 'Donatism' in W.A. Ellwel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01) 참조.

도나티스트 논쟁(The Donatist Controversy)을 통하여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됨이라는 두 속성의 조화 문제, 달리 표현하여 교회의 일치와 분열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 논쟁을 통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거룩'에 관한 도나투스파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검토하여 정통 가톨릭의 교회관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1. 거룩에 대한 올바른 개념 확립

1.1.1. 도나투스파의 거룩 개념: 직분자(職分者)의 무함(無欠)에 근거한 교회의 거룩

도나투스파는 직분자의 무함을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음'으로 해석하였는데, 고대교회에서 '배교'(apostasy)는 반드시 그 중죄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카에킬리아누스는 그 자신의 흠결(欠缺)과 무관하게 이미 '배교자의 아들'(filii traditorum)로 간주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박해 시에 신앙의 절개를 지킨 도나투스파의 주교야말로 합법적인 권위와 정통성을 가진 주교이며, 그런 주교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셈이다. 그러므로 도나투스파는 자신들만의 참된 교회 밖에서 베풀어진 성례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로 재세례를 베풀기까지 하였다.⁸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경험적으로 거룩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던 도나투스파는 그 거룩의 기준을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시에 보여준 행동에 두었던 것이다. 이런 개념은 사실상 율법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⁷ 포시디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외판 분도출판사, 2009). 포시디우스는 모두 31개의 장(章) 가운데 도나투스파와 관련된 6개의 장(章)을 도나투스파에 대한 교부의 태도를 묘사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⁸ Praamsma, *op. cit.*, 109. 도나투스파 주교인 크리스피누스(Crispinus)는 자신의 구입한 농장의 소작농들에게 강압적으로 집단 재세례를 베풀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게 '동료로서' 편지를 보내어, 재세례 여부는 수세자들의 의사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1.2.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록 개념: 하나님의 은사에 근거한 교회의 기록

411년의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가톨릭 교회의 기록함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 곧 설교된 말씀과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성례들은 집례자의 자질과 무관하게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하였다. 곧 ‘교회의 기록은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유를 들어 현재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수긍한다.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불경건한 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영혼의 성화’(sanctification of the soul)는 교회가 끊임없이 힘쓰는 하나님의 일(*opus Dei*)으로써 대단히 중요하지만, 땅 위의 교회는 도나투스파가 주장하듯이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기록성’과 관련하여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적용한 최초의 교부는 다름 아니라 도나투스파가 그토록 존경하며 호소하는 교부 키프리아누스(Cyprianus)이다.⁹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올바르게 구별하는 성경적 입장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비유에 착안한 노래를 지어 성도들이 부르게 하였다.¹⁰ ‘도나투스파에 대항하는 노래’(Psalmus contra pratem Donati, 393)로 알려진 이 찬송은, “하나됨을 기뻐하는 자는, 진리를 따라 판단할지어다”라는 후렴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도록 하였다. 그 첫 절의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 비유를 통하여, 지상의 교회가 기록과 하나됨의 두 속성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⁹ Willis, *op. cit.*, 121.

¹⁰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10), vol. III. *Nicene and Post-Nicene Christianity* (From Constantine the Great to Gregory the Great, A.D. 311-600), 1013.

악한 자들이 넘쳐나
형제들을 혼란하게 만드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그에 대항하여 무장시키셨네,
천국을 비유하사
바다에 던져진 그물이라 하셨네,
많은 물고기들이 함께 뒤섞여
가깝고 먼 곳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이제 해변가로 끌어올려졌는데,
이제 가려내는 일이 시작되네;
우선 좋은 물고기들은 통 안으로,
나머지 악한 것들은 다시 바다 속으로.
복음을 아는 모든 자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이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
그물은 교회를 뜻하고
바다는 악한 세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뒤섞여 있는 물고기들은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라;
해변가, 그것은 곧 세상의 끝 날이라;
그 때는 곧 선택의 날이라.
일부러 그물을 찢는 자들은
그 바다에 아주 깊이 빠진 자들이라.
그 통, 곧 거룩한 자들의 장소에,
그들은 결코 올 수가 없으리니.
하나됨을 기뻐하는 자는
진리에 따라 판단할지어다.¹¹

¹¹ Praamsma, *op. cit.*, 110.

1.2. 교회의 보편성 개념

411년의 대(大) 논쟁을 통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편협하고 율법주의적인’ 기록성을 앞세우는 도나투스파에 대하여 교회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 ‘보편성’(catholicity)를 들어, 도나투스파의 정통성 주장 및 가톨릭 교회와의 교제 단절을 강력하게 반박하였다. 온 세상에서 참된 교회는 소멸되었고, 오직 아프리카의 도나투스파에게만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도나투스파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의 교회는 북아프리카에 한정된 교회인 반면,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창 12:3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을 합당하게 성취하는 교회, 곧 모든 곳에 편만한 교회라는 사실을 대조시켰다.¹² 이러한 지리적 개념의 보편성과 함께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진리(whole truth)를 가르치는 교회야말로 참다운 보편적 교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점은 개혁주의 교회관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교회의 네 번째 속성 곧 ‘사도성’(apostolicity)과 맞닿아 있다.

도나투스파의 분파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의 ‘사랑 없음’을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한다. 교회의 보편성(catholicity)과 하나됨(eness)은 모두 사랑을 그 토대로 삼고 있는데, 도나투스파가 보이는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로 폭력적이고 투쟁적인 모습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그런 ‘사랑 없는’ 집단에서 베풀어지는 성례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성격을 갖지 못한다고 단언한다.¹³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 논쟁을 통하여 교회의 기록에 대한 잘못된 개념, 곧 ‘직분자의 무흠’이라는 인간적 덕목에 근거한 완전한 교회(Perfect Church)라는 잘못된 율법주의적 개념을 성경의 교훈에 따라 올바르게 배격하고 바로잡았다. 이런 잘못된 교회관이 일치와 기록을 대립시키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교회의 심각한 분열

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도나투스파를 마지막 순간까지 형제로 대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였던¹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참된 기준을 양보하지는 않았다. 그의 노래에서 ‘진리에 따라 판단하라’고 권고하는 후렴이 그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교회의 일치와 분열의 역사에서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sola scriptura)라는 기준은 종교개혁의 교회 특히 개혁교회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립되었다. 그것은 교회의 네 가지 속성 가운데 ‘사도성’을 올바른 성경적 교회관의 중요한 토대로 삼는 입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사도 베드로로부터 아나스타시우스에 이르기까지 로마주교의 명단에는 도나투스의 이름이 없다”는 그의 논박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성’이라는 속성을 ‘사도적 계승’(Apostolic Succession)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¹⁵ 물론 그가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야말로 보편적 교회’라고 강조했다 때, 사도적 교훈(Apostolic Teaching) 개념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또한 고대교회의 상황에서는 ‘사도적 계승’과 ‘사도적 교훈’은 그다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었고, 훗날 종교개혁 시대의 경우처럼 ‘대립적인’ 개념은 더욱 아니었다. 그렇지만, ‘사도성’을 무엇보다도 ‘사도적 교훈’으로 이해하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강조한 것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었다.

2. 칼빈과 개혁주의 교회관: ‘사도적 교훈’이라는 핵심 잣대

2.1.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개혁주의 교회관: 사도성, 곧 ‘말씀

¹⁴ 안타깝게도 말년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 개종이 이단과 분파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낫다는 주위의 주장에 설득되었고, 그 결과 중세시절의 끔찍한 종교재판소의 관행을 뒷받침해주는 교부적 전거로 이용되었다. 그렇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그의 평생의 노력에 오점을 남긴 이 에피소드를 침소봉대하는 것도 정당한 평가는 아니다.

¹⁵ Willis, *op. cit.*, 120.

¹² O. de Jong, *op. cit.*, 72.

¹³ O. de Jong, *Ibid.*, 72.

중심성

종교개혁 시절에 개신교는 천주교로부터 교회를 분열시킨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스위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개혁파 종교개혁은 보수적인 루터파 운동에 비하여 과격한 입장을 가진 급진주의적 운동으로 오해되곤 했다. 무엇보다도 개혁파 교회는 ‘분리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앞머리에 붙인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헌사’에서 천주교가 개혁교회에 붙인 이런 잘못된 ‘분리주의’의 딱지를 반박한다.

그들은 이 교리를 신기하고 최근에 생겨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교리가 교회에 도전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분리주의(分離主義)임을 자인하든가, 아니면 그런 교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세기에는 교회는 전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말하든가,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고백하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¹⁶

이런 비판에 대하여, 칼빈은 개혁교회가 모든 시대의 경건한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한 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므로 결코 교회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천주교의 그릇된 교회 개념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바로 잡는다. 즉 교회(教會)란, 천주교가 주장하듯이, 로마교회의 교황청(papacy)과 교직제(hierarchy)라는 유형적이고 가시적인 형체를 지닌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이라는 표지에 따라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여기서 칼빈은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 참 교회인지 가려내는 교회의 표지들(marks)을 제시함으로써, 개혁주의 교회관의 중요한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성경적 교회관을 다루는 *기독교강요* 4권에서, 칼빈은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주장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만으로 다스리시므로, 그리스도의 왕권의 상징인 그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과 별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¹⁸ 개혁파를 이단과 분파로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에서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단(heresy)과 분파(sect) 개념에서 ‘교리적 기준’을 좀더 근본적인 것으로 강조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단과 분파를 구별해서, 이단자들은 그릇된 교리로 건전한 믿음을 부패하게 만들지만 분리론자들은 간혹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교제를 끊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랑의 결합은 믿음의 일치에 달려 있으므로, ‘건전(健全)한 교리(敎理)의 일치(一致)’가 사랑의 결합의 출발점과 종점과 유일한 법칙이 된다.¹⁹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교회처럼 부패한 교회 안에도 건전한 요소들이 몇몇 남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칼빈은 단호하게 주장한다.²⁰

그러므로, 칼빈에 따르면,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의 핵심적인 구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에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것은 교회의 네 가지 속성 가운데 마지막 ‘사도성’을 ‘계승’이 아니라 ‘교훈’ (Apostolic Teaching)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런 근거에서 칼빈은 ‘만일 성경을 그 올바른 해석 원칙에 따라 바르게 가르친다면, 그리고 교부들의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로마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에서 승리는 확실히 우리의 것’이라고 프랑스의 국왕에게 자신 있게 주장한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의 기준은 사도성, 그 중에서도 ‘사도적 교훈’이라는 입장이 칼빈에 의하여 든든하게 세워진다. 그러므로 그가 ‘오직 하

¹⁶ 칼빈,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상권, 49.

¹⁷ *Ibid.*, 62.

¹⁸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ET by F.L. Battles, IV. ii. 4.

¹⁹ *Ibid.*, IV. ii. 5.

²⁰ *Ibid.*, IV. ii. 12.

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새로운 보편주의(Catholicism)을 목표로 하였다²¹ 라고 평가한 앙바르 드 라 투르(Imbart de la Tour)의 견해는 칼빈의 개혁주의 교회론의 핵심을 올바르게 파악한 평가이다.

2.2. ‘네덜란드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개혁교회의 교회관: ‘말씀에 근거한 참된 가톨릭 교회

개혁파 목사 귀도 드 브레(Guido de Bres)가 1561년에 작성하고 1563년 아르멘티레스 지방총회(provincial Synod of Armentieres)가 처음으로 받아들인 이후,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의 교리상의 일치를 증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경에 나타난 진리와 충돌되는 어떤 가르침도 담고 있지 않다”고 도르트 총회(1618-1619)에서 선포된 네덜란드신앙고백서(the Belgic Confession)는 모두 6개 조항들(27-32조)에서 개혁주의 교회관을 고백한다.²²

그 가운데 교회의 일치와 분열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첫 번째로 주목되는 항목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Everyone’s Duty to Join the Church)를 말하는 28조항이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분리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곳에서는 언제나 이 회중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보편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성경적, 교부적 교훈을 반영한다. 또한 이 조항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고백이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그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되며, 그 교회의 일치(unity)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신자는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걸며 지며, 하나님이 한 몸의 지체들인 그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형제 자매들

의 건덕(建德)에 이바지 해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참 교회에 반드시 가입하되, “심지어 지배자들이나 군주들의 칙령에 맞서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그 결과 죽음 혹은 육체적 형벌이 따라오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고백한다.²³

여기서 뚜렷하게 나타나듯이,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교회중심적인 삶’을 강조한다. 또한 개혁주의 신앙은 교회의 일치를 지향한다. 모든 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교회(Catholic or Universal Church), 곧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이다. 이 거룩한 보편교회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인물들에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 세계에 걸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에서 분파적인 성격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27조).²⁴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관의 중요한 특징은 교회의 이런 보편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히 연결시키는 점에 있다. 네덜란드신앙고백서는 그것을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식별하는 표지들’을 다루는 29조항에서 뚜렷하게 드러낸다. “모든 성도는 매우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식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의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의 이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스스로 보편교회라 주장하는 모든 단체들이 다 참된 교회인 것은 아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의 네 가지 속성 가운데 ‘사도성’의 기준에 따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평가의 지침, 곧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들(marks)은 첫째, ‘복음의 순수한 선포(the pure preaching of the gospel)와 둘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들의 순수한 집행’(the pur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²¹ G.S.M. Walker, “Calvin and the Church” in D.K. McKim ed.,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213.

²² Jan van Bruggen, *The Church Says Amen: An Exposition of the Belgic Confession* (Neerlandia: Inheritance Publications, 2003), 16-17.

²³ *Ibid.*, 161.

²⁴ *Ibid.*, 148-149.

²⁵ *Ibid.*, 163.

as Christ instituted them),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바로잡고 벌하기 위한 교회의 권징의 시행’(Church discipline for correcting and punishing sins)이다.²⁶

이 세 가지 표지들은 서로 밀접히 연결된 하나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세 지표 가운데 어느 하나가 쇠락하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다른 지표들에게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이 세 지표들은 모두 그 내용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핵심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그것을 그 용도에 따라 (혹은 적용되는 측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신앙고백서 자체가 이 ‘말씀 중심성’이라는 기준을 다시 확인(確言)한다. 세 표지들을 설명한 다음 곧바로 “요약하자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간주하며, 자신을 다스린다. 이로써 그 참된 교회는 확실히 알려지며, 누구도 그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아 말한다. 반대로,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자신 및 그 규례들에(to itself and its ordinances) 더 권위를 돌린다.” 즉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기초를 두고 있다.”²⁷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은 참된 교회의 지표이자, 교회의 하나됨의 열쇠이다.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속한 교회가 이런 기준에 따라 참된 교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요청한다. 그리고 그 참된 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2.3.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의 교회관에 나타난 말씀중심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보편(가톨릭) 교회’라는 개혁주의 교회관은 다른 개혁주의 신앙고백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이델베르크요리

문답 54문답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기독교회’(the holy catholic Christian Church)에 관하여 믿는 바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전 인류로부터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생을 위하여 택정된 교회를 그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되,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써,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by His Spirit and Word, in the unity of the true faith) 그렇게 하신다고 고백한다.²⁸ 이 문답은 교회의 보편성, 곧 모든 시대의 전 인류로부터 부름 받아 모인 교회의 성격을 가르치며,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하지만 (“나는 그 교회의 살아 있는 회원이며 영원히 그럴 것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참된 하나됨은 ‘말씀과 성령’에 달려 있다는 ‘사도적 교훈’의 중심성을 뚜렷하게 천명하고 있다. 개혁 교회는 이 요리문답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되는 것에 있다고 확고하게 고백한다.

마찬가지로,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교회’에 관한 27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인 보편교회에 ‘사역과 신탁과 하나님의 규례들’(the ministry, oracles, and ordinances of God)을 주셔서 이생에서 세상의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게 하셨다고 고백한다(3항). 핫지(A.A. Hodge) 박사는 이 고백의 의미를 “(1) “영감된 성경은 신앙과 실천의 무오류한 신탁이자 규칙이며, (2) 성령의 은혜와 선물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복음 사역을 말하며, (3) 말씀선포, 기도, 찬송,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 그리고 권징과 같은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 명하셨다는 의미라고 해설한다.²⁹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아 온전하게 만드는 사명을 맡았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여부는 바로 그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

²⁶ *Ibid.*, 164.

²⁷ *Ibid.*, 164.

²⁸ Jan van Bruggen, *Annotations to the Heidelberg Catechism* (Neerlandia: Inheritance Publications, 1991), 144.

²⁹ A.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8), 313.

의 규례들을 집행하는가, 그 교회의 공적 예배가 얼마나 순수하게 드러지는가에 달려 있다(4항). 이런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나면, 심할 경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혀 아닌’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다(5항). 특히 로마교회와 같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어떤 인간이 참칭하는 것은, 성경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반기독교적인 주장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찬탈행위이다(6장). 이처럼, 장로교회의 교회에 관한 신앙고백은 철저히 성경적 기초 위에 서 있다. ‘참된 교회는 성경적 교회이다.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반응 - 아멘(Amen) - 위에 세워진다.’

3. 교회의 일치와 분열과 관련하여 ‘아디아포라’에 관한 개혁파의 입장

교회의 일치와 분열과 관련하여 개혁주의 교회관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주제는 ‘아디아포라’(adiaphora)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 아디아포라 개념은,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의 거룩만큼이나 중요하게 강조한 개혁주의 교회에 교회의 일치를 위한 소중한 지혜를 더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1. 교회사에서 아디아포라 개념

본래 스토아학파에서 ‘대수롭지 않은’(adiaphoron)이란 뜻으로 사용된 이 개념은 교회의 역사에서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령되거나 혹은 금지되지 않은, 자유롭게 허용된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³⁰ 서방 라틴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는 당대 교회의 타락상을 비판하면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허용되지 않은 것은 금지된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교적 ‘불거리들’을 즐기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타매(唾罵)하였다. 그와는 반대 입장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금지되지 않은 것들은 명백하게 허용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³¹ 고대교회 시절부터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가 (중요한 교리적 사안과 더불어) 교회의 일치와 분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아디아포라’ 개념은 중세로마교회가 도입한 과다한 예전들과 인간적 법령들, 곧 교회의 참된 개혁을 가로막는 ‘악’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즉 성경과 무관한 그런 교회적 예전들과 법령들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에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구속력을 가진다’는 로마교회의 견해를 배격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 특히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이었다.³² 잘 알려져 있듯이, 스위스 취리히의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전기를 이룬 1523년의 토론회를 촉발시킨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사순절 금식규례를 어긴 자들에 대한 로마교회 당국의 고발이었다. 츠빙글리(Zwingli)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지지하였으며, 유명한 67개 조항(The Sixty-Seven Articles)를 작성하여,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부각시켰다.³³

루터교회에서 1548년 ‘라이프치히 가신조협정’(Leipzig Interim)을 둘러싸고 일어난 아디아포라 논쟁(The Adiaphoristic Controversy)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 사실을 한층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비텐베르크 주변의 복음적인 루터교회의 존재의 위기 속에서 멜랑히톤을 비롯한 신학자들은 ‘교회의 황폐함보다는 차라리 로마교회가 강요하는 비본질적인(non-essential) 것들을 허용하는’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신칭의’를 핵심으로 하는 순전한 교리와 예배가 보장

³⁰ 교회사에서 ‘아디아포라’의 개념에 관해서는, B.J. Verkamp, “The Limits upon Adiaphoristic Freedom: Luther and Melanchthon” in *Theological Studies*, 36 no.1 Mr. 1975, 55-57 참조.

³¹ B.J. Verkamp, “The Zwinglians and Adiaphorism” in *Church History* 42, no. 4, 1973, 496.

³² *Ibid.*, 493.

³³ W.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47-49.

된다면, 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대적 및 중세 로마교적 전통들은 ‘갑 내할 수 있다’는 것이 멜랑히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플라키우스(Matthias Flacius Illyricus)를 중심으로 한 소위 정통루터파(the Gnesio-Lutherans)는 루터교회의 예전의 핵심을 지키는 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또한 암묵적으로 명령된 것이라 주장하며 격렬하게 반발하였다.³⁴

17세기에 일어난 두 번째 아디아포라 논쟁은 ‘세속적 오락을 허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둘러싼 경건주의 논쟁이었다. 개혁교회의 청교도적 입장에 동조하여 세속적 오락들을 아디아포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신학자들 가운데 랑게(Lange)는 무려 19가지 이유를 들어 세속적인 오락을 즐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⁵ 다시 한번 소위 ‘대수롭지 않은’ 것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 교회의 하나됨을 희생시키는 요소로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에서 ‘아디아포라’는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3.2. 일치를 위한 개혁파의 노력: 관용과 인내 - 아디아포라 개념의 지혜로운 활용

교회의 일치를 저해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 차이만은 아니었다. 교회사 역의 중요한 장면들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단적인 사례로, 종교개혁의 두 주류인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의 일치를 위한 마르부르크 회담(Marburg Colloquy, 1529)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교리상의 차이보다는 - 그 차이는 루터가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미미하였다 - 신성로마제국 내에서 천주교와의 일치를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간주한 멜랑히톤(Melanchthon)의 정치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³⁶ 또한 교회의 분열과 일치는 ‘서로 다름’ 그 자체뿐 아니라 ‘서로 다름을 발견하였을 때의 태도’에도 크게 좌우되었다.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점에서 본질적인 것들과 아디아포라에 속한 것들을 유의 깊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취리히의 종교개혁자 피터 마티 버미글리(Peter Martyr Vermigli)가 프랑스의 교회적 일치를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된 프와시 회담(the Colloquy of Poissy, 1561)에서 황후 케서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에게, 천주교 주교들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보장해 주고, 오직 자유로운 말씀 선포를 통하여 참된 교회 여부를 스스로 가리도록 조언한 것도, 바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함으로써 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지혜로운 노력이었다.³⁷

이와 같은 입장에서, 칼빈은 근본적이지 않은 문제들에서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분열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일치라는 명목으로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fundamentals)이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음’ 등과 같은 내용이다. 또한 그런 올바른 믿음을 지탱해주는 타락하지 않은 말씀의 사역이다.³⁸ 영국교회의 개혁을 위한 회담에 초대를 받고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열 개의 바다를 건너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³⁹고 고백한 칼빈에게는 ‘다름’이 곧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³⁴ 아디아포라 논쟁의 전개에 관해서는, H. Scheibe, “Melanchthon” in *Thologische Realenzyklopädie* 22 (Berlin: Walter de Gruyter, 2000), 382-384. ‘1.8. Der Adiaphoristische Streit (1549-1580)’ 및 C.L. Manschrek, “The Role of Melanchthon in the Adiaphora Controversy” in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48 no.2 1957, 168-182 참조.

³⁵ J. Gottschick, “Adiaphora” in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Grand Rapids: Baker, 1966), 41-44.

³⁶ L. Praamsma, *De kerk van alle tijden* (Franeker: Uitgeverij T. Wever, 1980), deel II (De Reformatie-Eeuw), 110-113.

³⁷ B.F. Paist, Jr., “Peter Martyr and the Colloquy of Poissy” in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20 (1922, July), 418-419.

³⁸ Calvin, *Inst.*, IV.i.12.; G.S.M. Walker, *op cit.*, 215.

³⁹ 켈터베리 대주교 토머스 크랜머(Thomas Cranmer)에게 보낸 편지 Praamsma, *Ibid.*, II. 135.

공통의 토대 위에서 하나되기 위하여 노력의 필요’를 뜻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일치를 위하여 우선, ‘다름’을 용납하고, 그런 후에 인내를 가지고 오직 말씀 위에 하나됨을 추구할 줄 알았다. 재세례파들을 공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관용과 꾸준한 인내로 그들을 설득한 칼빈의 수고는, 그의 거듭 개정되어 출판된 기독교강요의 변화된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⁴⁰ 오직 성경의 원칙 위에 굳게 서되, 서로 다름을 관용하며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의 노력 덕분에 재세례파 운동의 상당 부분이 개혁주의 교회로 수렴될 수 있었다. 폴란드의 국왕에서 편지를 보내어, 종래의 대주교(Archbishop) 제도를 곧바로 철폐하지 말고, 단지 성경의 가르침에서 핵심적으로 벗어난 부분 곧 계서제적인 상급성직자 개념만을 제거한 채, 당분간 유지하도록 권유한 것도 교회의 일치를 위한 칼빈의 관용과 인내를 잘 보여준다. 개혁교회의 성숙한 성경적 질서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칼빈은 잘 알고 있었다.⁴¹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개혁자들의 ‘아디아포라’ 개념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락한 로마교회가 ‘구원에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강요한 잡다한 예전들과 형식들이 오히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원인들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오직 성경의 토대 위에서 인내하며 차근차근 의견의 일치를 만들어가야 할 일들을 조금하듯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개혁주의 교회관은 복음의 진리, 곧 순전한 교리라는 근본 토대를 굳게 세우며 치우침 없이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갔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을 관용하며 인내로써 바로잡을 줄 아는 ‘하나됨을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공교회적 자세를 결코 잃지 않았다.

결론

1.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인 ‘오직 성경’ 원리

개혁주의 교회관은 ‘일치와 순결’이라는, 자칫 상반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속성을 ‘사도성’이라는 네 번째 속성, 특히 사도적 가르침(Apostolic Teaching)으로서의 ‘말씀중심성’이라는 기준으로 함께 아우른다. 달리 말하자면,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종교개혁의 핵심원리는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을 위한 근본 토대이다. 그러므로, 교리에서 멀어진 현대 교회는 거룩과 일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옛 길, 곧 ‘오직 성경’의 원칙과 실천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주일 오후예배를 통하여 꾸준히 교리문답설교를 베풀고, 어린 시절부터 교리교육을 받게 하며, 성례를 베풀 때에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한 일 등은 오늘날 하나됨을 추구하는 개혁교회에서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2.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기 반성의 원리: 끝없는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교회

‘참된 교회’라는 성경적 기준에 따른 ‘진솔한 자기 반성’이 건강한 개혁주의 교회관의 특징이다. 곧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모토이다. ‘완전한 교회’(Perfect Church)라는 기만적 이데올로기에 빠진 분파주의적 집단은 오히려 자기 반성이 없다. 단적인 예로, 도나투스파는 그들이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비난한 일을 그들 자신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회개 없이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⁴² 이런 점에서 개혁주의 교회관은 과거를 미화하

⁴⁰ Willem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Grand Rapids: Eerdmans, 1981).

⁴¹ Praamsma, *op cit.*, II. 138.

⁴² *Ibid.*, 110-111. 앞서 언급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반 도나투스파 노래(Psalms contra pratem Donati)의 2절은 다음과 같이 교회 분열의 책임을 물으며, 분열을 일으킨 자

기보다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경적 건강성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따라 세워놓은 ‘참된 교회’의 뚜렷한 표지들을 우리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뿌리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개혁주의 교회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할 일이다. 그러나 뿌리가 곧 가치의 건강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개혁교회는 안수를 통한 사도적 계승이 교회의 정통성을 보장한다는 천주교의 ‘영적 자동주의’(spiritual automatism)를 배격한다.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하나님은 원래 가지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으셨다. ‘참된 교회’로 올바르게 서서 거룩과 하나됨의 속성을 계속 아름답게 지키려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인식하고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더욱 소중하게 다듬어 가야 한다.

3. 관용과 인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지혜로써의 아디아포라 원리

개혁주의 교회는 항상 하나됨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올바른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며, 분열을 정당화하는 태도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물론 교회의 일치를 추구할 때, 개혁교회는 ‘참된 교회’의 기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개혁교회는 ‘관용과 인내’를 가지고 ‘비본질적

칭 거룩한 자들이 사실은 똑 같은 실수를 저지른 자들임을 지적한다.

아마도 주의 깊게 들은 사람은 이렇게 물으리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그물을 찢었는가?
그들은 아주 우쭐대는 오만한 자들,
자신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분열을 조장하였으니,
재단 옆에 또 재단을 쌓으며
‘서책을 제출한 자들(traditores)에 대항하여 싸우나,
그들 역시 자신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으나,
한때 그들 스스로 잘못된 짓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네
그들 역시 그 서책들을 당국에 제출하였으면서
우리에게 그 죄책을 돌리고 있다네.

인 것들’ 곧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줄 알았다.

사실상 종교개혁이 한 세대를 거쳐 깊이 있게 진행된 곳일수록 ‘아디아포라’에 속한 영역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독일의 경건주의(Pietism), 네덜란드의 지속적 종교개혁(Nadere Reformatie), 영국의 청교도주의(Puritanism) 운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개혁교회는 ‘아디아포라는 없다!’(No Adiaphora!)는, 한층 높고 깊고 철저한 헌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기독교윤리학자 요켄 다우미(Jochem Douma) 박사는 그런 성숙한 의미에서 아디아포라를 극복하는 입장을 제시한다.⁴³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현실에서 우리는 종교개혁 1세대의 지도자들이 고민하였던 ‘관용과 인내’의 필요성을 새롭게 느낀다. 오늘날 서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 기준에 따라 하나되는 노력 없이 나란히 서 있다. 새롭게 하나되기 위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을 일거에 - 자신을 기준으로 - 강요하기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에 관한 성경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사도적 교훈이라는, 일치와 거룩 모두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갈멜산 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일거에 국가적 개혁이라는 과제를 이루려고 하였던 엘리야의 열렬한 심정을 우리도 역시 가지고 있으나, 참된 경건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우선 선지자 학교를 바르게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관용하면서, 참으로 ‘아디아포라는 없다!’고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성경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인내를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일치를 위한 칼빈의 노력은 바로 이 점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심장하다.

43 J. Douma, *Verantwoord Handelen: inleiding in de christelijke ethiek* (Kampen: Uitgeverij van den Berg, 1992) 중 아디아포라를 다루는 9장(Zijn er adiafora?)와 결의론을 다루는 12장(Casuïstiek)을 참고하라.

[참고도서]

1. 단행본

- 칼빈. *가독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상권, 하권
- 포시디우스. *야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외관: 분도출판사, 2009.
- 스티븐스, W.P.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Balke, W.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Grand Rapids: Eerdmans, 1981.
- Bruggen, Jan van. *Annotations to the Heidelberg Catechism*, Neerlandia: Inheritance Publications, 1991.
- Bruggen, Jan van. *The Church Says Amen: An Exposition of the Belgic Confession*. Neerlandia: Inheritance Publications, 2003.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Vol. 2. ET by F.L. Battles.
- Douma, J. *Verantwoord Handelen: inleiding in de christelijke ethiek*. Kampen: Uitgeverij van den Berg, 1992.
- Hodge, A.A. *The Confession of Faith*.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8.
- Jong, Otto de. *Geschiedenis der kerk*. Nijkerk: Callenbach, 1992.
- Praamsma, L. *De kerk van alle tijden*. vol. I. Franeker: Wever, 1980.
- Praamsma, L. *De kerk van alle tijden*. vol. II. Franeker: Uitgeverij T. Wever, 1980.
- Schaff, 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Grand Rapids: Eerdmans, 1910.
- Willis, G.G. *Saint Augustine and the Donatist Controversy*. Eugene: Wifp & Stock, 1950.

2. 논문

- Gottschick, J. “Adiaphora” in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Grand Rapids: Baker, 1966), 41-44.
- Manschrek, C.L. “The Role of Melanchthon in the Adiaphora Controversy” in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48 no.2 1957, 165-182.

- Paist, Jr. B.F. “Peter Martyr and the Colloquy of Poissy” in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20 (1922, July), 212-231, 418-447, 616-646.
- Scheibe, H. “Melanchthon” in *Thologische Realencyclopädie* 22. Berlin:Walter de Gryuyter, 2000, 371-410.
- Schindler, A. “Der Donatismus” in *Thologische Realencyclopädie* 1. Berlin:Walter de Gryuyter, 1977, 654-668.
- Walter, V.L. ‘Donatism’ in W.A. Ellwel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01, 329-330.
- Verkamp, B.J. “The Limits upon Adiaphoristic Freedom: Luther and Melanchthon” in *Theological Studies*, 36 no.1 Mar. 1975, 52-76.
- Verkamp, B.J. “The Zwinglians and Adiaphorism” in *Church History* 42, no. 4, 1973, 486-504.
- Walker, G.S.M. “Calvin and the Church” in D.K. McKim ed.,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212-230.